

“참다운 上下關係는 機能과 情의 調和에 있다”

趙 宇 鉉

〈延世大學校教授〉

職場에 있어서 인간관계란 것도 人間의 尊貴함과 平等에 대한 認識없이는 원만할 수 없다. 직장에서는 縱的關係, 즉 상하관계가 根幹을 이루고 있다. 橫의 관계의 기능화가 近代에 크게 제창되고 있지만, 그것도 上下의 縱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調整되지 않고 있는 상하관계에서 橫의 인 협조가 원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상과 下라는 구별은 우선 機能的인 業務處理의 필요에서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上下의 관계에서 잠재적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優劣觀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에 앉는 條件이나 基準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上과 下라는 것은 組織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래 사람에게 잔혹하리만큼 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위 사람에게는 아침을 일삼는 일이 많다. 그렇다고해서 그 잔혹이나 아침이 조직을 움직여가는 潤滑油도 아니다.

오늘날 조직속의 上下關係가 機能中心의 合理的인 관계라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일의 處理에는 어떤 私情이나 利害慾따위가 개재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機能性を 벗어나려고 하면, 일에 지장이 오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機能第一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은 인간이 발휘하는 기능이다. 그 기능과 인간다움 사이에 일종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는 事實이다. 上下의 관계는 우선 이 平凡한 事實의 認識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의 處地를 헤아림이 없이는 어떤 인간 관계도 發展할 길이 막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上下의 관계는 뚜렷한 差別을 인식하게 된다. 조직속에서 그 인식이 분명치 않으면, 조직의 組織性 자체가 희미해진다. 그리고 그 差別의 意識에서 비로소 關係의 秩序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런「관계의

질서」를 孔子는 「禮」라 했다. 禮가 흔들리면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전체도 동요를 가져오게 되고, 그 結果로는 能率도 低下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關係의 秩序를 「正義」에서 구했다. 正義란 인간관계의 合理性을 말하는 것이다. 分配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 正義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基本이 흔들리게 된다. 禮도 正義도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뼈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孔子는 『사람으로서 仁(천애의 정)이 없으면 禮인들 무엇하랴』는 말을 잊지 않았고, 아리스토텔

上下關係에서 잠재적으로 意識을支配하는 優劣觀念이란 있을 수 없다. 위에 자리에 앉는 條件이나 基準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그런데, 아래 사람에게 잔혹하리만큼 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위 사람에게 아침을 일삼는 일이 많으나, 그것이 組織을 움직여가는 潤滑油도 아니다.

텔레스도 『正義로운 사람이라도 그위에 사랑을 필요로 한다. 最大의 正義란 뭔가 사랑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고 그의 倫理學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요컨대 機能的인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 서로 남을 헤아릴 줄 알고, 나아가서는 人間으로서의 情을 느끼는 데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機能과 情과의 調和야말로 上下를 맺는 참다운 關係의 秩序이다. (「淨化」誌 7月号에서) *